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 사건

【결정사안】

윤재환이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항일독립운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예산경찰서와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유치되었고, 일본 법정대 전문학부에 재학 중이던 1938년 일본 ‘재 동경 유학생 독립운동’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시청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하여 ‘동경 유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므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윤재환은 송도고보 재학 중이던 1934년 조선 공산당 재건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사건에 연루되어 1934년 4월 22일 경 중심인물 신갑범 등과 함께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같은 해 6월 12일 기소 유예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조선레포트회의는 부분적으로 반일본, 반제국주의적 구호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윤재환이 만주사변 후인 1934년에 기소유예의견으로 송치된 점에 비추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윤재환이 항일독립운동 때문에 예산경찰서에 수차례 연행, 구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3. 윤재환의 동경에서의 행적과 관련해서 당시 제일 조선인 유학생과 법정대학 조선인 유학생 사이에 항일적 활동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전문가 자문과 문헌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윤재환이 이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당시의 일본 측 신문이나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4. 윤재환이 제적등본에 기재된 대로 1938년 10월 16일 오후 3시 도쿄시 시바쿠 아카바네초 1번지(東京市 芝區 赤羽町 1番地)에서 사망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윤재환이 법정대에 유학했는지, 재동경 항일독립학생운동과 관련해 경시청에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윤재환이 동경 경시청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는지, 그리고 그 장례식이 ‘동경 유학생장’으로 치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전 문】

【사 건】 가-77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항일독립운동

【신청인】 윤용택

【결정일】 2007. 7. 3.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 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 윤용택의 주장에 의하면, 백부 윤재환(尹載煥)은 1933년 충남 공주 영명학교에서 황해도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재학 중 항일독립운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예산 경찰서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유치되었으며, 1938년 일본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사건에 연루되어 일본 경시청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사망하여 ‘동경 유학생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이에 신청인 윤용택은 백부 윤재환의 국내외의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청하였다.

II. 진실규명의 과제

윤재환의 1930년대 재동경 항일독립운동 사건과 관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1933년 이후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윤재환의 항일독립운동 행적.
- 둘째, 그와 관련하여 윤재환의 예산경찰서와 서울 동대문경찰서 유치 여부.
- 셋째, 윤재환의 일본 법정대학 유학 여부와 1938년 ‘재동경 유학생 독립운동’사건 유무.
- 넷째, 그와 관련하여 윤재환이 일본 경시청에 체포되어 고문 사망 여부 그리고 ‘동경 유학생장’의 실재 여부.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진실규명신청서 검토와 예비조사 결과, 윤재환이 1935년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실



과 1934년 개성에서 ‘조선공산당재건을 목적으로 한 코민테른 조선보고회의 사건’과 관련하여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재환이 1938년 10월 16일 오후 3시 도쿄시 시바쿠 아카바네초 1번지(東京市 芝區 赤羽町 1番地)에서 사망한 사실과 전문가 자문과 문헌을 통하여 1938년 당시 일본정부의 재일 조선인¹⁾ 유학생 탄압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여,

본 사건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의거하여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되는 바,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6월 13일 조사개시 의결을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IV. 조사방법과 경과

1. 조사의 방법

2005년 12월 7일 신청서를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2006년 6월 13일 본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에는 신청의 신빙성 여부와 제출된 첨부자료에 대한 검토 및 참고인들과의 전화면담, 관련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후에는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와 참고인 면담조사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가. 문헌자료조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국회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관련자료 및 문헌을 검색하였고 소장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또한 1933년 이후 송도지역 항일독립운동 및 1938년을 전후한 일본 동경 조선인 유학생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외 참고 자료 및 문헌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였으며,²⁾ 윤재환이 관련된 송도지역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행적을 국가보훈처 소장 판결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³⁾

이외에도 국내 항일독립운동에 관하여는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처에, 재동경 항일독립운

1)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인’, ‘한국’이란 표현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한정되는 용어이므로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조선인’, ‘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사건관련 문헌자료 목록.

3) 국가보훈처소장 판결문을 통하여 윤재환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한 코민테른 조선보고 회의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윤순달, 박승극, 김순진, 이규몽의 이후 노동운동 등 항일독립운동 행적이 확인되었다.

동에 관하여는 일본 법무성에 관련자료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전문가면담

본 사건에 대한 핵심에 보다 용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및 향토사학자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다. 진술청취

본 사건 진실규명 대상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9일부터 2007년 4월 25일까지 신청인과 참고인 및 전문가들과 전화 면담 등을 실시했다.

또한,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실규명 대상자 윤재환의 주소였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선정환, 삽교에서 태어나 계속적으로 삽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 15명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재환의 여동생 윤정숙의 삽교초등학교 동창생 박동규를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생 명부를 입수하여 전화 및 방문조사를 하였다. 특히, 윤정숙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확인된 이차숙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29일 용인으로 자택을 방문하여 증언을 받을 수 있었다.⁴⁾

그 외, 예산군청, 삽교읍사무소, 예산문화원 등 관공서 방문을 통해 관련 기록 여부를 확인했으며, 예산 지역 향토사학자를 통해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2. 조사의 경과

본 사건의 자세한 조사과정과 진행사항은 첨부문서인 ‘조사일지’에 시간 순으로 기록하였다.⁵⁾

V. 조사결과

1.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윤재환의 항일독립운동 행적

윤재환이 송도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송도지역 학생반(AM회)에 가입하여 송도고등보통학교 3학년을 담당했던 사실과 노동운동과 관련한 기관지·팸플렛 은닉죄로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 조선보고회의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으며, 동대문경찰서 등에서 50여 일간 구금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참고인 진술서.(이차숙)

5) 조사일지



가. 예비조사 결과에 나타난 사건의 주요 내용

예비조사는 신청내용과 윤재환의 송도고등보통학교, 일본 법정대학 재학 여부 확인 및 국가기록원의 관련자료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진실규명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윤재환이 신청인 윤용택의 백부인 사실과 윤재환의 제적등본에서 '1938년 10월 16일 오후 3시 도쿄시 시바구 아카바네초 1번지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둘째, 6월 7일 인천 소재 송도고등학교⁶⁾에 윤재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6월 22일 「송도학원 90년사 부록 회원명부」, 「제16회 (1935년 졸업) 명부」를 제공받아, 윤재환이 1935년에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윤재환의 예산경찰서·동대문경찰서 구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6월 9일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7월 3일 관련 자료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로 일제의 탄압은 한층 강화되었고, 학생운동은 가두시위 형태에서 학원 내의 정예화된 소수 학생들에 의한 지하결사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⁷⁾

공주의 경우, 1932년 3월 영명여학교와 공주고등보통학교 식당에 반전 격문이 붙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⁸⁾ 시기적으로 윤재환이 영명학교 2학년 때이다. 2006년 9월 13일 공주 영명중학교 윤용권 선생과 통화하여, 1980년대에 영명학교 동창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회원명부 공주영명고등학교 동창회」의 1933년 부분에 주소가 서산인 '유재환'의 존재를 확인하였다.⁹⁾ 단지, 한자 이름은 없었다. 1980년대 동창들의 희미한 기억으로 서산이 본적인 윤재환이 '유재환'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6년 11월 20일 참고인 이차숙은 전화면담에서 윤재환이 영명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고 증언했다.

윤재환이 1935년 송도고등보통학교(16회)를 졸업한 사실에 비추어, 윤재환은 1933년 4학

6) 인천의 송도고등학교는, 1953년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에 재직했던 선생들이 인천에 같은 이름의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는 1917년 4월 1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32년 당시 한국의 사립고등보통학교로는 양정·배제·송도·보성·휘문·중앙·고창·오산·금천·광성·영생고등보통학교가 있었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2년도』 제372표, 1933년)

7) 국가보훈처, 「제4편 1930년대의 학생민족운동」 『독립운동사 제9권 : 학생독립운동사』, 1977, 665쪽, 671쪽, 682쪽, 691쪽.

8) 같은 책, 『동아일보』 1932. 3. 14. 「공주격문범인 필경검거취조」.

9) 2007년 4월 30일 영명중학교 윤용권 선생으로부터 '1933년 동창생 명부'를 팩스로 받아 재확인하였다.

년 때 영명학교에서 정규학교인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다. 윤재환의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의 항일독립운동 행적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한 윤재환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조선 공산당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 사건 검거에 관한 건』과¹¹⁾, 『조선 공산당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 사건 검거에 관한 건』¹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두 자료의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윤재환에 관한 내용은 5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34년 2월 7일, 간도 용정촌의 코민테른 조선 레포트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신갑범¹³⁾은 김낙성, 송금산 등과 함께 경성, 개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1934년 3월 4일 조선공산주의 운동 축성 개성지방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개성지역 학생부 책임자 김계춘은 송도고등보통학교 학생 가운데 비교적 혁명의식이 농후한 자를 규합하여 학생반(AM회)을 결성하기로 하고, 3월 18일 윤재환을 입회시켰다. 그리고 4월 6일경 윤재환의 거주지에서 제2회 회합을 가졌고 AM회를 서남회(소나무회)로 개칭하였다.

2) 4월 18일경,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우회를 개성지역 학생부 밑에 둘 계획으로 윤재환에게 3년생 책임부서를 맡겼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3) 4월 20일경, 기관지 『재건투쟁』 제3호를 여러 장 베껴 윤재환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일경에게 발각되었다.

4) 『부인노동자의 산업적 지위와 혁명적 임무』라는 팸플릿을 김계춘이 윤재환 등에게 배포하였다.

5) 송도경찰서에서 이상의 관계자를 체포하여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이관하였는데, 동대문경찰서장의 보고에 의하면 ‘치안유지범위반 및 출판법위반 관계자 45명 중, 8명은 기소 의견, 12명은 기소유예의견, 10명은 불기소 의견, 12명은 기소중지의견을 붙여 6월 12일 사건을 송치하였다’. 사건관련 검거자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10) 일제 강점기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홍석, 「일제 하에 서의 한국 기독교학교」 『기독교사상연구』 제4호, 1997, 163쪽.

11) 경동경고비 제1311호, 1934년 6월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상에 관한 정보첩』 7 수록. 이 자료는 경성 동대문경찰서장이 작성하여 경기도 경찰부장, 경성지방법원 검사, 정·부내 및 관계 각 경찰서장에 송부한 것으로 총 298매임.

12) 경고특비 제1800호, 1934년 6월 27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경찰 정보첩』 1934년 수록. 이 자료는 경기도 경찰부장이 작성하여 경찰국부장, 경기지방법원 검사, 정·간도 총영사, 각도 경찰부장, 관하 각 경찰서장에게 송부한 것으로 총 203매임.

13) 신갑범은 이명으로 서상용, 오상근, 오성환, 오동욱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표 1〉 ‘조선공산당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 사건’ 관련 검거자

이름	연령	본적주소	신분	직업	신병	의견
윤재환 (尹載煥)	18	본적 충남 예산군 삽교면 신가리 283 주소 개성부 지정 111-12	상민	송도고보교 5년생	체(逮)	유(猶)
이영의 (李映儀)	22	본적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1577 주소 상 동	〃	농업	〃	유(猶)
김창연 (金昌鍊)	18	본적 평북 구성면 오봉면 성교동 364 주소 개성부 고려정 123-1	〃	송도고보교 4년생	〃	〃
민병하 (閔丙夏)	22	본적 안성군 양성면 방축리 475 주소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 256	〃	직공	〃	〃
김순진 (金舜鎭)	23	본적 경성부 인의동 158 주소 〃 계동 147	상민	무직	〃	〃
신갑범 (愼甲範) 이명:오상근, 오성환, 서씨, 한모	24	본적 전남 제주도 신화면 신촌리 2200 주소 부 정	양반	노동	체(逮)	기(起)
김성원 (金成源)	22	본적 경기도 개성부 원정 231 주소 상 동	상민	농업	〃	〃
윤재환 (尹載煥)	18	본적 충남 예산군 삽교면 신가리 283 주소 개성부 지정 111-12	상민	송도고보교 5년생	체(逮)	유(猶)
이영의 (李映儀)	22	본적 개성군 영남면 용흥리 1577 주소 상 동	〃	농업	〃	유(猶)
김창연 (金昌鍊)	18	본적 평북 구성면 오봉면 성교동 364 주소 개성부 고려정 123-1	〃	송도고보교 4년생	〃	〃
민병하 (閔丙夏)	22	본적 안성군 양성면 방축리 475 주소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 256	〃	직공	〃	〃
김순진 (金舜鎭)	23	본적 경성부 인의동 158 주소 〃 계동 147	상민	무직	〃	〃
신갑범 (愼甲範) 이명:오상근, 오성환, 서씨, 한모	24	본적 전남 제주도 신화면 신촌리 2200 주소 부 정	양반	노동	체(逮)	기(起)

이름	연령	본적주소	신분	직업	신병	의견
김성원 (金成源)	22	본적 경기도 개성부 원정 231 주소 상 동	상민	농업	〃	〃
이주환 (李周煥)	24	본적 경기도 개풍군 임진면 상조강리 322 주소 상 동	〃	〃	〃	〃
김계춘 (金桂春)	20	본적 함남 홍원군 용원면 중동리 262 주소 개성부 남본정 333	〃	송도고보교 5년생	〃	〃
황직연 (黃稷淵)	□□	본적 경북 문경군 산북면 대하리 476 주소 경기도 광화문동 160 광신여관 내	양반	무직	〃	〃
윤순달 (尹淳達)	2□	본적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557 주소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 59-8	상민	직공	체(逮)	기(起)
윤병수 (尹炳洙)	2□	본적 경기도 종로 5정목 506 주소 군산부 삼중정 지점 내	양반	양복기공	〃	〃
박승극 (朴勝極)	26	본적 수원군 양감면여문리 348 주소 상 동	〃	저술업	〃	〃
		… 하 락 …				

※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의 사건 검거에 관한 건』, 『조선공산당 코민테른 조선 레포트회의의 사건에 관한 건』. 체(逮):체포 유(猶):기소유예, 기(起):기소, □ : 판독불가.

위의 자료에 따르면 윤재환은 1934년 4월 22일 경에 체포되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이관된 후 같은 해 6월 12일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에 비추어 윤재환은 50여 일간 동대문경찰서 등에 구금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윤재환이 간여한 조선레포트회의는 부분적으로 반일본,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단체로 판단된다. 이 점은 자료 『조선공산당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의 사건 검거에 관한 건』의 3. 범죄사실, ‘B. 코민테른 조선레포트회의에서, … 조선으로 하여금 공산사회를 이루게 하고, 이어 일본제국 기반(羈絆. 울무)으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해서 조선 공산당 재건 운동 활동을 할 것¹⁵⁾’ 이라는 부분과, 『별지 7호』의 ‘우리의 목적 - 왜놈을 쫓아낼 준비를 하자’¹⁶⁾에서 확인된다.

다만, 부분적으로 반일·반제적 성격을 지닌 단체에 참여한 사실은 분명하나 기소유예에

14) 2006년 6월 9일 국가기록원과 2006년 7월 11일 국가보훈처에 윤재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두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5) 원문, ‘朝鮮ヲシテ共產社會ヲラシメ延テ日本帝國ノ羈絆ヨリ離脱セシムル爲メ朝鮮共產黨再建運動ニ活動スベク’

16) 원문, ‘一. 倭奴ヲ追ヒ出ス準備ヲシヨウ’.



처해진 점에 비추어 윤재환이 반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윤재환의 사고나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일본 법정대학 재학 중 윤재환의 항일독립운동 행적

윤재환이 동경 유학시절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군 삼교읍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참고인 2인의 진술이 있었으나, 진술이 막연한 추정과 전문(傳聞)에 그쳤으며,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추가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가. 윤재환의 법정대학 재학 여부

일본 법정대학 총무부 오렌지네트워크 교우과에, 6월 9일과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윤재환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¹⁷⁾, 6월 23일과 7월 26일 법정대학 담당자 다나카(田中)로부터 윤재환 관련 자료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법정대학교에 근무하는 한국인 한병곤을 통하여 『법정대 교우지』(1935~1938), 『한국유학생 명단』 등을 조사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삼교지역 대지주의 아들 윤수동의 법정대학 유학 여부 및 당시의 충남정미소 경영자의 변천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시 만난 참고인의 대부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윤재환이 법정대학에 재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나. 윤재환의 재동경 항일독립운동 행적

1) 전문가 자문 결과

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2일과 8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김인덕 교수를 초청하여 재일동포사 전반에 걸친 강의 및 자문을 구하였다. 또한, 7월 28일 독립기념관 일본담당자 김도형·김형목 박사를 방문하여 조사방향과 자료발굴에 관한 면담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후반의 일본사회와 국제관계를 정리한 후에 조선인 유학생의 민족운동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문헌 및 자료 등에서 진실규명대상자의 이름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일본 법무성 등에 판결문·수감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확인해야 한다.

17) 일본에서는 2003년도에 행정기관·독립행정법인 등·일반 단체기관으로 구분된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심사회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었다. 법정대학의 경우, 요청자료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질 것인가에 대해 관련 부서의 장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 법정대학 자체 내부회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관련자료 요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셋째, 활동관련 주변 인물들의 공훈심사 내용과 공적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문헌자료 조사 결과

윤재환이 사망한 1938년 당시 문헌 상 확인되는 재동경 조선인 유학생의 조직 활동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1938년 동경의 사립대학에 유학 중인 조선인 학생 수는 2,296명이었으며, 조선인이 재학하는 학교에는 반드시 조선인 학생단체가 있었다.¹⁸⁾ 그 단체는 ‘조선 유학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스스로 일본과 구분을 하였고, 재일 조선인의 민족주의 내지 좌익 사상운동의 원천 역할 및 조선 내 사상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민족의식이 고취되어 일본정부는 조선인 학생단체의 움직임을 경계하였다.¹⁹⁾

당시, 재동경 조선인 유학생의 구체적인 민족운동으로서는 ‘조선인 유학생 연학회’,²⁰⁾ ‘평안(平安)클럽’,²¹⁾ ‘열혈회’²²⁾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활동 속에서 윤재환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 측 사료 『사회운동의 상황(1938.1~1942.12)』,²³⁾ 『소화사상통제사자료 26, 27, 28』,²⁴⁾ 『특고월보』(1938.1~12),²⁵⁾ 『재일본 한국인 민족운동』,²⁶⁾ 그리고 1938년도에 일본에

18) 1938년 말, 재일 조선인 유학생 수는 12,497명, 그 가운데 6,335명이 동경에 재학 중이었다(국가보훈처, 「재일 유학생 민족운동」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19) 같은 책. 당시 재일 조선인사회의 분위기는, 1936년 제11회 올림픽에서 손기정·남승룡의 우승으로 민족정신이 더욱 고취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생하자 재일 조선인 사이에는 일본의 국제적 고립과 재정적 파탄은 장차 일본을 패전으로 이끌 것이며, 일본의 패전은 조선의 독립과 연결된다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갔다.(국가보훈처,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1930년 이후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1073쪽)

20) ‘조선인 유학생 연학회’는 1935년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지도 모체로 결성되었고 중일전쟁 발발 후 구노농파(舊勞農派) 검거 등으로 위축되자 1938년 2월 12일에 해산을 발표하였다. 이후 개인적인 연락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박용칠 등 다수의 중심멤버가 조선에서 검거된 것을 알고 재동경 회원은 각각 도피를 도모하던 중, 5월 10일 경시청에 중심인물 우삼흥을 비롯하여 관계자 10명이 검거 취조당한 후, 12월 1일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동경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되었다(김정명 편, 「재일 한국인의 일반 사상 상황」 『조선독립운동』Ⅱ, 국학자료원, 1980, 695~702쪽, 복각판).

21) ‘평안(平安)클럽’은 동경농업대학에 재학하는 김두혁, 김태훈, 김운하가 중심이 되어 1937년 10월에 조직되어 활동하였는데 기본강령은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의 패권으로부터 이탈케 하고, 그 독립을 도모하고 (조)선내에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등으로 되어 있다. 1938년 10월 각 대학의 조선인 학우회와 연락하여 활동하였는데, 법정대학에서는 김상문이 해당 학교의 책임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40년 3월에 발각되어 중심인물 김두혁은 조선에서 체포되었다(앞의 책,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1930년 이후의 민족운동」, 695~702쪽). 단, 이 단체는 민족주의 단체로서 공산주의를 배격하였으며, 평복출신이 중심을 이루었다.

22) ‘열혈회’는 청산학원 신학부 박윤옥을 중심으로 조선독립을 계획한 비밀조직으로 1936년에 결성되어 일맥회라 칭하였다가 1937년 2월 열혈회로 개칭하여 활동하다 같은 해 11월 관계자가 일제 검거되었다.(국가보훈처, 「재동경 조선인학생 민족운동. 소화특고탄압사 발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4, 1270~ 1282쪽)

23) 국가보훈처, 『사회운동의 상황(1938.1~1942.12)』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 재일본한국인민족운동자료집』.

24) 奥平康弘 편, 『소화사상통제사자료 26·27·28』, 서울 : 고려서림, 1991.

25) 일본 구내무성 간행, 1938년도판.

26) 국가보훈처 소장,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 재일본한국인민족운동자료집』, 국가보훈처.



서 발행된 신문 기사를 조사했으나, 전술한 3건의 재동경 조선인 민족운동 이외의 관련 내용 및 윤재환의 재동경 항일독립운동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실지조사 결과

윤재환의 항일독립운동 행적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²⁷⁾는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참고인들의 면담 및 진술 청취를²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선정한, 삼교에서 태어나 삼교에서 계속 거주해 온 참고인 15명을 방문하여 윤재환의 집안 내력과 항일독립운동 행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삼교의 참고인들은 윤재환에 대한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일부는 윤재환의 부친이 ‘미두’²⁹⁾를 경영하였고 삼교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류층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 박동규(당 83세)가 윤재환의 여동생 윤정숙과 삼교초등학교 동창생임이 확인되었고, 박동규를 통하여 초등학교 동창생 명부를 입수하여 전화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차숙³⁰⁾은 윤정숙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재환으로부터 개인교수를 받았던 관계로 윤재환과 그의 집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 9월 29일 용인 자택으로 이차숙을 방문하여 증언을 받았다. 즉, 이차숙은 윤재환이 1938년 여름 방학 때 삼교에 돌아왔을 때 개인교수를 받았으며, 그해 가을에 윤재환이 일본에서 죽어 그 유골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윤정숙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렇게 건강했던 오빠가 왜 갑자기 죽었을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³¹⁾

윤재환의 남동생인 윤현환의 삼교초등학교 동창 강복성(당 80세)은 1938년 가을 윤현환으로부터 형 윤재환이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독립운동이 뭐래니? 독립운동하면 맞아 죽는대니?’라며 물었다고 한다.³²⁾

윤재환은 부친 윤경용(尹敬龍)과 모친 전숙향(全淑卿) 사이에서 8형제³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윤경용은 예산군 삼교읍에서 ‘미두’라는 곡물유통업을 경영하여 전화로 인천과 자주 연락하여 쌀을 상양하였고, 곡물을 인천에 내어 팔았다고 한다. 당시 삼교 내에서 전화

27) 예산 실지조사보고서.

28)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서.

29) ‘미두(米豆)’란 현물 없이 쌀을 팔고 사는 일로 실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이다(이홍직, 『국사대사전』, 학원출판공사, 1997).

30) 이차숙은 당 80세로 전 원광대학교 가정대학교 교수.

31) 참고인 진술서, 이차숙.

32) 예산 실지조사 보고서.

33) 8형제의 이름 : 재환(1남), 부환(2남), 정자(1녀), 정숙(2녀), 석환(3남), 현환(4남), 정희(3녀), 정환(4녀). 신청인은 2남 부환의 장남이다.

가 있는 집은 두 곳 밖에 없었다고 하며, 윤재환의 부친은 인텔리나 부자들이 즐겼던 테니스를 했다고 한다. 즉, 윤재환의 집안이 삼교에서는 중상 이상의 경제력을 지닌 집안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윤재환이 정식학교가 아닌 영명학교에 진학을 한 것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⁴⁾ 윤재환은 1933년 상급학교진학을 위해 학력이 인정되는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지조사와 참고인 등의 증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교 참고인들은 대부분이 윤재환이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³⁵⁾

둘째, 생존하는 윤재환의 여동생과 남동생의 동창생 이차숙과 강복성을 통하여 1938년 여름방학 때 삼교를 찾은 윤재환은 건강했었다는 사실과, 같은 해 10월 윤재환이 ‘독립운동’을 하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4) 일본 법무성에 관련정보 공개요청 결과

2006년 9월 22일 판결문관련 전문 일본인 연구자 야마다쇼지(山田昭次) 교수³⁶⁾에게 본 신청사건을 비롯한 일본관련 신청사건 조사에 관하여 자문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부 신청사건에 관하여 야마다쇼지 교수가 직접 일본 경시청, 법무성 등에 관련자료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전화상으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5) ‘동경 유학생장’의 실재 여부 조사 결과

윤재환의 장례식이 ‘동경 유학생장’으로 치러졌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그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윤재환의 법정대학 동창인 윤수동의 장남 윤선희에게 2006년 11월 23일 전화로 관련 사진 제공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11월 28일, 참고인으로부터 “부친 윤수동의 유물 가운데, 윤재환의 장례사진인 ‘동경 유학생장’ 사진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전화 답변을 받았다.

34) 2006년 10월 20일, 이차숙과의 전화 면담에서.

35) 그 이유는 ① 윤재환이 예산이 아닌 공주 영명학교를 다니다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간 까닭에 윤재환과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윤재환 사망 직후 윤재환의 부친 사업이 잘 안 되어 집안 모두가 인천으로 이사를 했고, ③ 원래 윤재환 집안이 서산에서 예산군 삼교로 이사를 해 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6) 현재 일본국 동경 릿쿄(立教)대학 명예교수이며, 우리 위원회 해외 비상임위원으로,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한 판결문을 조사하여 연구한 경력이 30년 이상임.



VI. 결론

송도고보 재학 중인 1934년 윤재환은 조선 공산당 재건 코민테른 조선 레포트 회의 사건에 연루되어 1934년 4월 22일 경 중심인물 신갑범 등과 함께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같은 해 6월 12일 기소 유예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조선레포트회의는 부분적으로 반일본·반제국주의적 구호를 표방하고 있었으나, 윤재환이 만주사변 후인 1934년에 기소유예처분된 점에 비추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윤재환이 예산경찰서에 수 차례 연행, 구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윤재환이 제적등본에 기재된 대로 1938년 10월 16일 오후 3시 도쿄시 시바쿠 아카바네초 1번지에서 사망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윤재환이 법정대에 유학했는지, 재동경 항일독립학생운동과 관련해 경시청에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윤재환이 동경 경시청에서 고문 끝에 사망했는지, 그리고 그 장례식이 '동경 유학생장'으로 치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언 및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본 사건은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된다.